

2013. 7. Vol 223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느리나무

푸르른 잎맥마다 맑은 현을 켜고 있다
세상 향해 부르던 어린 시절 고운 노래
살갑게 곁을 내주어 그 손잡고 내딛은 걸음

발목 젖는 고된 나날 네 옆에 기대서면
속마음 드리운 어둠 살갑게 귀 기울여
두둥실 둥근달 띄워, 가만히 자리 내주고

햇빛마저 갈지 못한 모서리 궁글리며
나이테로 끌어안은 하 많은 아픔들
한세상 곳곳이 버터 지향점 내보인다



최세희

- 충북시조 회원
- 제5회 청풍명월 시조 백일장 장원
- 시조시학 신인문학상
- 시낭송전문가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3. 7. Vol 223

Contents

- 04 제 320 · 321회 임시회
- 교육청 제1회 추경, 과학벨트 건의문 채택
- 06 도의회 충북도민 행복정책개발 나섰다
- 「주관적 행복지수 및 정책 개발」 연구용역
- 07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추진을 위한 공청회
- 08 제9대 의회 3주년 주요성과
- 09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 10 2013 오송 화장품 · 뷰티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 11 제5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성료
- 12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
- 20 주요 처리 의안
- 22 대집행부 질문 · 답변
- 24 5분자유발언
- 27 의정활동 이모저모
- 30 의원논단
- 31 의정일기



충주호

충북 충주시 · 제천시 · 단양군에 걸쳐있는 호수.
충주댐 건설로 조성되었으며
8월 25일부터 8일간 세계조정
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

- 발행일 2013년 7월
-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광수
- 주 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홈페이지 <http://assem.cb21.net>
- F A X (043) 220-5119
- 구독신청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우편 주소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처 충청북도의회
- 전화 (043) 220-5123

제 320 · 321회 임시회

교육청 1회 추경 · 과학벨트 건의문 채택

귀농인 지원 조례 등 현안 심의
절전운동 솔선… 냉방시설 가동 않고 간소복 회의

충청북도의회(의장 김광수)는 5월 6일부터 15일까지 제 320회 임시회를 열어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1조9,645억 7,769만 2천원에서 1,473억 359만 7천원 증액된 2조 1,118억 8,128만 9천원으로 편성 됐다.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에서 (가칭) 예성유치원 토지매입비 등 총 17건에 91억 9천7백44만 3천원이 삭감돼 예비비에 증액 계상 됐으며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특히 예산안 심의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맞는 정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할 것과 관례적인 예산편성, 비효율적인 예산사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추경예산안과 함께 산업경제위원회 유완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제3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김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들은 6월 임시회부터 범국가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냉방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노타이’ 간소복 차림으로 등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처리와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기능지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관련사업과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정책복지위원회 최미애 의원의 대집행부질문과 김재중 · 장선배 · 김봉희 · 김종필 의원이 차례로 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관련법 개정 · 예산지원 등 정부노력 촉구

충청북도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와 국회의장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실로 보냈다.

건의문을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기능지

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관련 사업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당초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조성이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촉구하여 보다 원활한 진행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문

정부는 지난 2011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추진과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정부는 그저 생색내기용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서만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기능지구가 거점지구와 연계한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연구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자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국회는 이를 처리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160만 충북도민을 대표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기능지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관련 사업과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취지와 기능지구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과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하라.

2013년 6월 18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도의회, 충북도민 행복정책 개발 나섰다

「주관적 행복지수 및 정책 개발」 연구용역

충청북도의회가 그동안 객관적인 경제성장 중심의 지표에서 벗어나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주관적 행복지수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바탕을 둔 정책개발을 추진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장선배의원) 주관으로 6월 11일 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주관적 행복지수와 삶의 질 지표를 활용한 충북도민 행복정책 개발연구」라는 의정학술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의정 학술연구용역은 도민들 각자가 느끼는 주관적 행복도와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것. 도의회가 지난 2012년 12월 충북시민재단(대표 신영희)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6개월간 연구활동을 벌였다.

도의회가 행복지수 연구용역을 하게 된 것은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이 주민들의 행복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살률, 우울증, 범죄 발생률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 행정서비스의 최종 목표는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데 있는데, 기존의 성장과 개발중심의 하드웨어적인 정책만으로는 주민들의 주관적인 행복상태를 높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경제발전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 비경제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새

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경제, 환경, 복지, 문화, 교육, 주거 등 총 12개 영역 52문항으로 주관적 삶의 질 지수를 만들고, 표본으로 추출된 충북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물로 50개의 충북도민 행복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도의회는 도민들의 행복 및 삶의 질 지수를 더욱 정교화하고 제시된 정책과제는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장선배 위원장은 도의회의 연구용역 배경에 대해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도정 목표이면서도 경제성장과 물리적 복지환경 확충에만 치중했지, 정작 도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은 지금까지 등한시 했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도민들의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행복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데이터를 누적시키는 것은 물론 도민 행복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이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6월 1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주관적 행복지수와 삶의 질 지표를 활용한 충북도민 행복정책 연구개발'을 주제로 의정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추진

정책복지위,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장선배)는 5월 14일 오후 3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최미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책복지위원회가 조례 제정에 앞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전반에 대한 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충북도내 장애인 단체·기관 대표 및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해



▲ 5월 1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인단체·기관 대표, 전문가 등을 초청해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현실성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장선배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도의회 김광수 의장의 격려사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최미애 의원의 조례 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장애인단체 도연합회 남상래 회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충북협회 장병호 회장, 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 최난나 회장, 여성장애인연합충북지부 강경희 지부장,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미정 회장 등 도내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이 토론자로 나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최미애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중증 장애인 복지정책은 보호, 훈련 위주의 재활 패러다임이었지만 이제는 장애인들도 지역사회 내에서 자기결정,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해 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남상래 회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확대’사업이 충북도 민선5기 공약사업인 만큼 조례제정을 통해 제대로 된 장애인 권리보장이 이루어지길 소망 한다”며

“특히 조례제정 절차에 있어 도 장애인 단체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병호 회장은 “무엇보다도 중증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난나 회장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전환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들은 희망자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다”면서 “발달장애인에 한해서는 지원센터 등 공식적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희 지부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은 삶의 순간순간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면서도 끊임없이 누군가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며 “중증 여성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주거와 경제력 문제도 중요하지만, 막상 지역사회로 나와 생활하다보면 ‘안전’문제가 가장 절실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9대 의회 3주년 주요성과

‘도민을 섬기는 열린의회 구현’에 최선

지역균형발전, 상시의회 실현... 집행부 견제 제도화

충청북도의회는 제9대 개원 3년 동안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을 쏟으며 큰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도의회가 3년 동안 이룬 성과물은 ▲도정 현안 해결에 ‘선봉’

▲지역 균형발전과 현장의회의 실현 ▲대 집행부 견제 강화와 제도화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외교적 역량 결집 등 새로운 시대적 조류를 반영한 다양한 현안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도정 현안 해결에 ‘선봉’

도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사수’를 위한 민·관·정 연석회의 개최, 국회 앞 쟁기대회 등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유치를 위해 선봉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 국립암센터 오송분원 유치를 위해 국회·정부기관 등을 방문하며 도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전달하고, 2011년 9월 도의회 주도로 ‘충청권 대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국립암센터 분원 설립 재추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2010년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이끌어 냈고,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현재까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를 위해 2012년 2월 청주·충주시·제천시·청원군의회 의장단 연석 회의를 여는 등 지역상권 보호에 앞장섰다.

대 집행부 견제강화와 제도화

결산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변상·징계조치를 요구하고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정·요구 사항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했다. 또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개정해 선서와 자료 미제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사기간도 10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현장의회 실현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의정사상 최초로 도의회 본회의장을 벗어나 옥천에서 본회의를 열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또 제천과 괴산에서 현장 상임위원회 회의와 지역균형발전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지역균형발전의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이와 함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지역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을 위한 ‘민·관·정 공동대책회의’ 개최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통합 시 출범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9월 ‘청원 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0만 통합시를 대비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실현

역사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도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해 예산심의에 주민의견 개진이 가능토록 했고 정책토론을 요청할 수 있게 했으며, 도의회의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모든 본회의 상황을 인터넷 생방송 하고 있다.

또 새로운 시대적 조류를 반영한 각종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과의 대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도민과의 교감과 소통을 위한 문턱을 더욱 낮추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의원 외교에서의 성과 창출

외교적 역량도 결집시켜 중국 흑룡강성인민대표대회와 오송 차이나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민간자본 투자, 흑룡강성~청주공항 간 항공기 취항 협력 등 5대 과제를 제시해 지난해 1월 전세기 취항이 이루어졌다.

또 지난해 11월 중국 광저우자치구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해 충북경제자유구역내 투자, 한·중 문화예술 교류 등에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 냈고, 베트남 빈푹성인 민위원회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국제교류의 폭을 한층 넓혔다는 평가를 얻었다.



충주서 세계인의 ‘물살 향연’ 펼친다

8월 25일부터 8일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80개국 2,300여 선수단 참가

올 여름, ‘물의 고장’ 충주에서 화려한 물살 향연이 펼쳐져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된다.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8일 동안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린다.

80개국 2,3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조정 종국인 영국을 비롯,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중계돼 30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최고의 국제 수상 스포츠 행사로 치러진다.

‘세계를 향한 꿈과 도전’(Rowing the World)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번 대회를 계기로 충주는 세계적인 수상 레저 관광휴양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3충주세계선수권대회로 생산유발 1,159억원, 부가가치 512억원, 고용창출 1,44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충주국제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대회 개최를 앞두고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회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100명의 조직위원을 258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한범덕 청주시장과 현군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총장 등 도내 기관 및 단체장과 체육계, 학계, 정계, 언론계 등의 인사를 조직위원으로 영입했다.

역대 최대 참가국 유치를 위한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5월말 현재 참가를 약속한 국가가 73개국에 달해 지금까지 가장 많은 선수들이 참가한 2011년 슬로베니아대회의 68개국을 이미 넘어섰다. 조직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당초 목표한 80개국 달성을 위해 대륙별로 ‘타깃 국가’를 설정해 집중 공략하는 ‘맞춤형 유치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은 이미 완공됐다. 도로망 정비 사업도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은 2008년 첫 삼을 뜬 이후 4년간의 공사 끝에 그랜드 스탠드, 피니쉬 타워, 마리나 센터, 보트 하우스, 중계도로 등 최고의 국제경기장으로 탄생했다.

경기장 시설은 대회 이후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랜드스탠드는 전망대나 문화체험교실로, 마리나센터는 카페나 레스토랑으로, 보트하우스는 유스호스텔이나 조정체험교실로, 중계도로는 산책로 등으로 각각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탄금호에는 수상레포츠타운을 조성해 조정경기장과 연계해 최고의 수상레포츠타운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교통 숙박 음식 준비도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이 머무를 1,979개 객실을 이미 확보했다. 이 객실은 온돌과 1~2인용 침실로 이루어져서 조직위가 목표로 하는 선수단 2,300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회기간동안 매일 100여대의 대형버스를 투입해서 공항과 숙소, 숙소와 경기장 간을 운행할 계획이다.



2013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충북 화장품·뷰티산업 메카로 부상

미의 대축제 '2013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가 지난 5월 3일부터 26일까지 2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성공적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4일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목표 관람객 100만 명을 훨씬 뛰어 넘어 112만 명을 돌파했다. 국내·외 바이어도 3,500여명이 박람회장을 찾아 2만 6,000건의 상담과 4,500억 원이라는 상담실적을 기록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또한 뷰티 마켓관에서는 13만여건에 20억 원이 넘는 판매실적을 보였으며 경연대회장에서는 화장품·뷰티산업을 선도하고 미래 뷰티산업계의 발전을 이끌어 갈 학생과 산업계 인력 4만여명이 모여 24일 내내 자신들의 '끼'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다.

오송 화장품·뷰티 박람회가 산업과 문화박람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대박' 박람회였다는 평가가 받는 대목이다.

충북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화장품·뷰티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또 다른 한류문화인 'K-뷰티 전진기지'를 선점하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충북은 국가 유일의 생명과학단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대 국책기관, 과학벨트 기능지구, 오창과학산업단지, 대덕연구단지 등과 연계해 기능성 화장품산업의 연구와 생산의 중심

지, 유통의 중심지, 그리고 뷰티서비스산업 교육 중심지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충북도의회는 이번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충북도와 협력체계를 갖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도의회는 박람회 기획과 예산확보를 위해 도와 보조를 맞췄고, 박람회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미비점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 3월 도의회 회의실에서 홍보 발대식을 갖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 김광수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 참석해 박람회를 홍보했고 도의회 대표단이 베트남 빈푹성의회와 중국 등을 방문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앞으로 도의회는 박람회 효과를 지역산업발전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북도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시종지사는 "이번 화장품·뷰티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면서 "생명 산업과 태양광 산업을 충북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온 우리 충북이 화장품·뷰티 산업을 또 하나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제52회 충청도민체육대회 성료 시·군 함께 어우러진 화합축제 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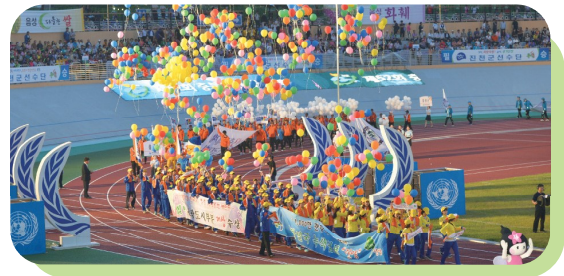
도민 화합의 한마당 축제인 제52회 충청도민체육대회가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도지사, 도의회 의장 및 도의원, 교육감 등 도내 기관 단체장과 선수단이 참여한 가운데 음성군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충청북도체육회가 주최하고 음성군과 음성군체육회·음성교육지원청이 주관한 이번 도민체전은 ‘사랑, 나눔, 평화’를 슬로건으로 펼쳐졌다.

이번 도민체전에는 12시·군에서 총 4,524명(선수 3,222명, 임원 1,302명)이 참가했으며 육상과 축구 등 24개 정식종목과 1개 시범종목(인라인롤러), 1개 시연종목(실내조정) 등 일반부 26종목과 금년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학생부 4종목(육상, 축구, 씨름, 태권도)의 경기가 펼쳐졌다.

대회결과 일반부에서 개최지 음성군이 종합우승, 청주시가 종합2위, 제천시가 종합3위를 차지했으며 학생부에서는 청주시가 1위, 음성군이 2위, 제천시 3위에 올랐다. 또 전년도 성적을 기준으로 성적이 향상된 시·군에 수여하는 성취상은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모범선수단상 부문에서는 옥천군이 화합상, 괴산군이 질서상, 청주시가 우정상을 받았다.

이번 도민체전은 반기문화랜드에서 성화를 채화하고 사랑·나눔·평화의 기본방향에 걸맞게 장애인, 소



년소년가장,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특별주자가 선발돼 봉송한데 이어 개회식 성화점화시 이시종 도체육회장을 비롯한 12개 시장군수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도민 화합의 의미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금년도 처음 학생부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하여 엘리트체육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고,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대한 범도민적 관심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실내 조정경기를 시연종목으로 개최했다.

내년 2014년 제53회 충청도민체육대회는 보은군에서 개최된다.

충북체육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미비했던 부분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함께 2014년 청주청원통합출발, 선수발굴 등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부 종합채점제 도입 검토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20·321회 임시회

위원회조례 등 3건 심의 의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중)는 제320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를 개최하고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5월 15일 개최된 제32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바이오정책과와 단지개발과 의 업무 일부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상임위원회를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설소방위원회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날 「제3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제321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대집행부 질문 및 의안심사 등을 위해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하고, 제322회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경예산안 종합심사와 대집행부 질문 등을 위해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17일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정례회 세부일정은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추경예산안 종합심사,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7일 대집행부질문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 개최 전에 실시한 간담회에서는 의원 연구활동을 위해 노광기 의원 외 4명이 제출한 '청주·청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에 5백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 활동은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연구의 주된 목적은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임금현황 분석 및 직무만족도 조사, 민간보육시설과 법인보육시설 비교 분석, 종사자 임금현황에 대한 장·단기 발전방안 제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 5월 15일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20 · 321회 임시회

사회복지 현장 찾아 운영확인



▲ 6월 12일 아동생활시설인 음성 '항애원'을 방문해 기관운영과 아동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인권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장선배)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집행부와의 간담회 등 발로 뛰며 주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민생의정을 전개했다.

먼저 5월 14일 정책복지 분야 의정참여단과 함께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준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또 이날 오후 올 하반기 제정 계획으로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최미애 의원을 비롯한 정책복지위원들과 각계 전문가,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가 참여해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관련한 수요자 집단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사회의 역할 등 많은 의견을 도출했다.

아울러 최근 아동인권 침해 행위로 충격을 주고 있는 제천 소재 아동생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상황을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제321회 임시회 첫 날인

6월 11일 최근 보조금 압류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사회복지법인 '송덕원'과 관련된 추진상황 등 8건의 도정 현안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송덕원 산하 각종 복지시설의 정상운영과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대책을 마련할 것과 예산절감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도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날 열린 「주관적 행복지수와 삶의 질 지표를 활용한 충북도민 행복정책 개발 연구」 결과보고회에서는 각 분야별 도민의 행복지수 조사결과 및 이에 따른 정책대안들이 제시되어 앞으로 도의회 의정활동과 도의 정책수립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6월 12일에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생활시설인 항애원(음성)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아동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와 근본적인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아동 인권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20·321회 임시회

유형문화재 관리상태 점검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체육관광국 등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주요문화재 관리에 대한 현지점검과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조직위 현지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사업의 추진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함께하는 충북’을 만드는데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주요문화재 관리실태 점검에서는 충북도 문화예술과장, 의정참여단과 함께 단양군 대강면 소재 대흥사와 원통암을 현지 방문해 “문화재를 철저히 체계적으로 보전·보호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통사찰로 지정돼있는 원통암이 1997년 화재로 소실된 후 복원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복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주변에 있는 문화재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또한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조직위 현지방문에서는 무더위에도 박람회 성공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역

할을 다해내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리고 제321회 임시회 중에도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의 안전심사와 주요문화재(향교)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특히 김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기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지숙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병역명문가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적용해 개정했다.

또한 6월 13일 실시한 현지방문에서는 집행부 관계자와 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98호인 청산향교를 방문해 관리 및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실시해 향교 운영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도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해줄 것을 주문했다.



▲ 6월 13일 주요문화재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옥천군 청산향교를 방문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청취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20·321회 임시회

귀농인 육성·지원 대상 확대



▲ 6월 12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현)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심사하여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의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했고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발의·심사하는 등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5월 10일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도시에서 퇴직한 사람 중 귀농하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귀농인 자격의 낮은 연령제한으로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귀농인의 연령을 55세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귀농인을 육성·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정비했다.

또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는 정부부처의 고시내용에 따른 용어의 뜻을 개정하고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다.

그리고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제 막 첫발을 디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먼저 6월 12일에는 충북도의 청원군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할 사업추진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기능지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관련 사업과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이어 이제 막 첫발을 디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 및 국내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속에 신규투자가 위축되고 있지만 경자청의 성공적 조성은 결국 기업유치에 달려 있으므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20·321회 임시회

문장대용화온천 사업지역 확인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광진)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4월 25일자 조직개편으로 바이오환경국으로 업무가 이관된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등 바이오환경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유해화학물질관리와 관련해 '환경정책과'와 '소방본부' 간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해 효과적으로 유해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과 업체별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5월 14일에는 오송역 일원에서 열리는 '2013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장'을 찾아 오송119안전센터에서 파견 중인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심폐소생술을 체험했다. 위원회는 박람회장을 찾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등 2건을 심사하고, '문장대 용화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현지확인하고 도정 현안 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지난 12일(수) 괴산군 청천면사무소에서 가진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의회에서도 청정지역 괴산군의 이미지를 보존해 나갈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고 소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고 또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도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지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하는 것으로 인 정되어 원안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119지역대재배치, 재난예방 등 시의 적절한 발언으로 집행부에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 6월 12일 경북 상주시가 추진 중인 '문장대 용화온천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재 조성사업이 중지된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제320·321회 임시회

교육비특별회계 1회 추경 심사



▲ 6월 13일 충북반도체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관으로부터 직업교육 현황을 듣고 시설을 시찰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필)는 지난 5월 6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천 지역을 방문하여 의림유치원 예정부지와 장락초등학교 등의 현장을 시찰했다.

또한 같은 날 기숙형중학교 운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속리산중학교와 도의회를 방문한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기숙형중학교 설립과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5월 8일 제320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이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오창 제2산업단지 내 학교설립(신설) 계획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과 「2013년도 제1회 충

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면밀한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

그리고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대구광역시를 찾아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충북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교육위원회는 강서초등학교·청주여자중학교 농구, 석교초등학교 야구, 청남초등학교·감곡초등학교 축구, 진천중학교 핸드볼 경기 등을 참관하고 선수들과 지도교사들을 격려했다. 또한, 6월 13일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용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했다.

아울러, 같은 날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을 방문해 체험식 교육시설을 둘러본 후 누리과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일선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충북반도체고등학교를 방문해 실습 현장의 교육기자재 및 설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직업교육 실태를 면밀히 시찰하고 직업 교육과 더불어 기초학력 제고에도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20·321회 임시회

교육청 추경 17건, 91억 원 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5월 10일 제320회 임시회기 중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2조 1,118억 8,128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7.5%인 1,473억 359만 7천원이 증가된 규모이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013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의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세입결합 보전을 위한 자금 차입,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했고 세출예산은 국가시책사업과 학교시설 증·개축,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체육교육 활성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창의경영학교 지원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세출예산안중 불요불급한 예산, 교육지원청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칭)예성유치원 토지매입비 등 총 17건에 91억 9,744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했다.

심의 중 산출내역이 미비한 사업에 대한 자료작성의 허점을 지적하고 포장단가, 배수로 공사 등 교육지원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단가 산정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향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정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예산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영어권국가 현지어학연수의 필요성을 질의하며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린 사업이 많음을 지적하고 관례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예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천체관측체험센터 운영에 대해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기술이전 등 보완대책 마련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승인했다.



▲ 3월 13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320·321회 임시회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 확인



▲ 6월 18일 옥천군 의료기기 창업보육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유완백)는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지 확인은 북부권, 남부권 2개 권역으로 나누어 6월 14일과 6월 17일 양일간 실시했으며, 북부권은 증평군 울리 웰빙타운 조성사업 현장과 단양의 관광종합타운 현장을 확인하고, 남부권은 옥천 의료기기 창업보육센터 건립 현장과 영동 농가형 와이너리 육성사업 현장을 확인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발전도가 낮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증평 울리 웰빙타운과 단양 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격려하고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소득향상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했다.

또한 옥천 의료기기 창업보육센터 건립 현장 방문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투자효과와 전망치를 구체화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의 농가형 와이너리 육성 사업장에서는 지역의 농특산물 세계화와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에 대해 격려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재원 확대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현지 확인을 통해 수렴된 자료들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자료로 활용해 지역균형발전의 성과가 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발전 방안 및 대안모색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과제에 대해 전문용역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4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4개월간 충청북도 정책 및 예산 등을 모니터링 하고 균형발전 안배차원의 분야, 부문별 예산운용 목표 등을 제시하여 골고루 잘사는 충북건설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주요 처리의안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제320회 임시회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반영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학교규칙 제정에 따른 지도·감독 기관의 인가 절차 폐지와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의 지방직 교육공무원 전환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등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수립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광희 의원)

- 충북 도내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형평성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통하여 업무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5조에 따라 편성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조 9,645억 7,769만 2천원에서 1,473억 359만 7천원 증액된 2조 1,118억 8,128만 9천원으로 편성

2015년도 오창 제2산업단지내 학교설립(신설) 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오창 제2산업단지 개발계획(오창읍 창리 일원)에 따른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5,636세대가 입주 예정임에 따라 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 등을 개정하고, 지역교육청의 전문상담인력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자 함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윤성옥 의원)

-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운용 중인 조례의 일부 용어정의 및 수도권내 대상지역을 고시된 내용에 따라 개정하고,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귀농인 연령제한 삭제, 귀농인 육성·지원계획 수립

충북도의회가 지난 320회 임시회에서 55세 이하로 정의한 귀농인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귀농인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체계화함으로써 충북으로 귀농하는 이주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의 개정 △귀농인 연령제한 삭제 △귀농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이며, 귀농인 육성·지원계획에는

- 귀농인 육성·지원사업 추진절차 및 추진방향
- 귀농인의 유치·홍보·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귀농인의 자격과 지원사업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 귀농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귀농인의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그밖에 귀농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이며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제321회 임시회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반영 및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형근 의원)

- 직제변경에 따른 명칭을 일치시키고 명칭의 정확화를 위해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로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명시하고 명칭의 정확화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변경하고자 함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지숙 의원)

- 병무청 훈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이 2012년 12월 21일 개정되면서, 병역명문가의 정의에서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의 현역복무를 포함하며, 현역의 정의를 확대함에 따라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조례의 정의를 변경하고자 함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임현 의원)

- 관광진흥법 개정에 의하여 과징금징수 업무가 종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명시되어, 조례 제5조의 과징금 부과·징수의 시장·군수에 위임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에 의거, 관광진흥법 관련업무 등이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가 수행하는 사무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 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조례에 근거조항을 반영하고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변경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심기보 의원)

- 충청북도 공인조례의 근거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2011년 12월 21일 개정을 통하여 제명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고 같은 규정 제41조가 제40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새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지방 차원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변경하고 균형건설국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가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안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 정부는 2011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청원이 가능지구로 지정되었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사회 안전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필요 인력과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소방인력을 증원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응천 의원)

- 2001. 7. 27.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시대와 여건의 변화에 적합하게 관련 조문을 보완 및 정비하고자 함

아동인권 강화 · 산단 유해물질 저감대책 촉구

최미애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아동양육시설 인권 관련

[질문] 올해 5월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천 영육아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밝혀진 아동 학대 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충청북도는 언제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선 욕을 심하게 한다거나 하는 어린이에게 생마늘을 먹이고 또 특별한 통제수단으로 타임아웃방이라는 독방을 운영해서 사실상 감금행위 같은 것을 하고 또 아동 자립 지원금을 지급 지체하는 등 여러 가지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실의 인지 시기는 작년 9월 국가 인권위 조사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질문] 아동양육시설 대상 인권평가지표가 있는지와 지금까지 도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도차원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동에 대한 인권평가지표는 아직 국가 차원에서도 개발되지 않았고, 도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는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질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천시에 제시한 권고사항의 이행여부가 매우 미흡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도에서 진단하는 도내 사회복지 생활시설 인권유린 문제의 지속적 발생원인과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국가인권위에서 제천시에 권고한 내용은 교사 6명 징계, 시설장 교체 등 6가지 사항으로 일부 법적 문제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이외에는 6월 내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권유린 문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입소인 인권에 대한 시설종사자의 인식부족을 들 수 있으며, 대응책으로는 시설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연1회 이상 이수도록 추진하고, 지속적 인권실태조사와 결과에 따른 엄중처분으로 시설 내 인권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산단 유해물질 저감대책 관련

[질문] 우리 충북도는 아주 심각한 정도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로 도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차원의 저감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유해화학물질 배출 업소를 대상으로 저감시설을 설치해 자율적으로 배출량을 최소화시키도록 꾸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디클로로메탄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 5개소와 저감목표량을 설정해, 단계적 목표에 따라 이를 실천해 나가는 스마트프로그램 자율실천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질문] 기업들이 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 시스템의 구축과 산업단지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산단 주변 거주 주민, 전문가 및 환경단체 분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민간감시단을 구성,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민참여형 민간감시단 운영에 대해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저희 충청북도에 도입할 가능성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산단지역 유해화학물질 배출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조직 인프라(인력, 조직, 예산 등)가 타 도에 비해 매우 부족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차원의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타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도의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산단규모의 증가로 업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인력충원 등을 총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천~평창간 고속화도로 2014년 착공해야

권기수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제천~평창고속화도로 조기착공 관련

[질문]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라 추진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제천~평창간 고속화도로 사업은 우리도가 올림픽 배후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조기 착공되어야 하지만 과연 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본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실현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함께 제천~평창간 고속화도로 사업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의 연계가 아닌 별도의 구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 사업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공약사업이지만 대회 유치를 위한 IOC 현장실사때 발표되지 않은 사업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방침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제경기대회지원 실무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의 성공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7월에 예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강원도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과 올림픽관련사업에 포함 추진하여 이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축산농가 지원대책 관련

[질문] 축산농가 회생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이 시름에 빠진 이유와 대책, 그리고 축산정책 방향이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추진상황과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사료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모든 감축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축산업의 어려움이 처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한우, 돼지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공급과잉) 둘째, 높은 수입사료 의존도 셋째, 복잡한 다단계 유통체계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질적성장 위주로 적정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모든 8,846두를 8월까지 감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증산대책을 추진함은 물론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료 구매자금 1,050억원을 1.5% 저리로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농업인 교육의 예산확대

[질문] 매년 초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영농기술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비와 시·군비로 편성되어 운영중인 교육 예산에 도비 지원이 반영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최근 농업인들의 신기술 교육 열기가 높아 교육 참여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 도에서 지향하는 친환경 유기농업 진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제천학생회관 사업 관련

[질문] 제천학생회관 건립과 영어체험센터 건립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지 않아 교육감 공약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데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제천학생회관과 영어체험센터 설립을 동시에 추진 할 경우 재정 투·융자 사업심사 시 결과가 불투명한 실정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 2016년 영어체험센터 개원 이후, 공연장을 포함한 제천학생회관 이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의 유효기간은 임기 내이지만 상황과 예산 등에 따라 부득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임기 내 착공한 공약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본 대집행부질문은 제 222호 제작 시 편집오류로 인해 수정 게재합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새로이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온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란 허울 좋은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해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 합니다.

첫째,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포장하여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슬그머니 해제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확대,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지역발전 정책의 우선적 추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둘째,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로 발표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국정과제를 실현할 구체적이고 현

실적인 정책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하라.

셋째, 정부는 지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신뢰 국정을 운영하라.

이와 같은 지역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 죽이기에 나선다면, 강력한 실력저지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정부 규탄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완백 의원

환경오염 배출업소 철저한 관리감독을

2013년 시작과 함께 도내에서는 무수히 많은 유해가스 유출사고가 발생했고 발암물질을 비롯한 위험물질 배출양도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적 처방이나 대안·대책제시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충북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야 할 당연한 권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고 주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비극을 초래 할 수 있어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저는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환경관련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결과를 주민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둘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제를 확고히 확립함은 물론 환경감시활동에 주민참여를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셋째, 중앙정부 차원의 철저한 기준체계를 확립해 달라는 건의와 요청을 충북도가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주십시오.

끝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위험물질로 분류했지만 환경부에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위험물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제도 및 시스템을 만들어 충북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일에 충북도의회가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의원

하절기 재난·안전사고 예방 시책 강화해야

하절기 재난예방과 안전사고예방 시책추진에 대하여 당부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절기 재난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해를 입었으나 현재까지도 복구가 완료되지 않고 공사 중인 사업장과 연차계획에 의거 시행 중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장, 소하천 정비사업장에 대해 일제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수해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공사현장이 관리부실로 수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과 영동군지역 금강둔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수변공원은 이용객이 거의 없음에도 해마다 수억 원의 관리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차례에 걸쳐 강물이

범람하여 현재는 잡초만 무성해 출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충북도에서는 이미 조성된 4대강 사업의 사후관리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행락철을 앞두고 우리 도내의 안전시설 확대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저수지 등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수십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역점추진하고 있는 안전행정 정책과 연계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사계절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에 만전을 당부드립니다.



김재중 의원

무상급식 예산분담, 논란 재발 안 된다

충북은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해 3년째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무상급식비 분담을 둘러싸고 도와 교육청이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했고, 도민들에게도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저는 연말에 가서 또 다시 도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갈등과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충북도와 도교육청 양 집행기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2014년도 무상급식 예산분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메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무상급식이 국비사업으로 설정돼 지원되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제안 드립니다.

앞서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요청한 무상급식 관련 매뉴얼 작성과 분담액 합의가 자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 말 합의한 대로 도의회와 양 집행기관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전에 합의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집행기관인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스스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사전에 도의회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노력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장선배 의원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사업 확대해야

노후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에 있어서 본인이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노후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많다는 것입니다.

도에서 파악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 7만여 동이 있는데 1년에 12개 시군이 각각 평균 100여동씩 철거를 한다고 해도 58년이란 기간이 소요됩니다.

둘째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비용지원이 너무 적다는 사실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폐석면을 처리하는 데에 가구당 최대 240만원이 지원되지만 초과되는 금액 모두 자부담을 해야 하기에 오히려 저소득층 주민들은 신청을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건강을 보호하며 환경 개선효과를 거두는 사업인 만큼 비용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철거물량 확대가 이루어져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봉회 의원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행정 추진을

산간오지 지역의 119지역대통폐합으로 소방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에 조속한 대안마련을 촉구합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119지역대 통폐합으로 현재 29개소의 지역대가 폐쇄되고 이 중 22개 지역이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되지 못한 소방 사각지대 6개소가 발생해 이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소방관서의 통합과 인력조정으로 그 피해가 모두 도민들에게 이어져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 됩니다.

충북도에서는 지난 4월 19일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단양, 괴산, 보은 지역에 소방서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각각 34명씩 총 102명을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119지역대는 통폐합하여 안전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119안전센터 신축과 시설개선 등을 통해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놓은 지역은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인력을 대폭 보강한다는 발상이 도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방서 미설치 지역의 소방서 설치에 동의하지만 통폐합에 따른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우선 선행된 후 수립되어야 합니다.



김종필 의원



의정 활동 이모저모



▲ 충청북도의회는 6월 28일 김광수 의장과 도의원, 이윤규 이장과 주민, 홍성열 증평군수, 사무처 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도의회, 증평읍 송산1리와 1사 1촌 자매결연

감자수확 등 일손 도우며 어려운 농촌현실 체감

충청북도의회(의장 김광수)는 6월 28일 증평군 증평읍 송산1리 마을(이장 이윤규)과 마을회관 앞에서 1사 1촌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날 자매결연식에는 김광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송산1리 이윤규 이장, 홍성열 증평군수, 박희철 농협은행충북지역본부장, 마을주민, 도의회사무처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및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1사 1촌 결연운동은 도·농간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자매결연을 통한 일손돕기와 친환경 농산물 홍보 및 농산물 소비확대에 앞장서고자 마련됐다.

또한 이날 자매결연 체결 후 도의회사무처 직원 60명은 이 마을 주민이 가꾸어 놓은 감자를 수확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김광수 의장은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농촌사랑운동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교류 할 것' 이라고 밝히며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일손돕기에 동참해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산물을 직거래하여 도·농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의정 활동 이모저모



- ▲ 김광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충혼탑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참배하고 있다.



- ▲ 5월 14일 김광수 의장이 2013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장에 60만번째 입장한 경남 의령군에 거주하고 있는 김상대씨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 ▲ 행정문화위원회는 5월 10일 의정참여단과 함께 단양 미륵대흥사, 원통암을 방문해 주요문화재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 ▲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6월 18일 영동군 농가형 와이너리 육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 충청북도의회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의회교실'에 충주 예성여고·청주 신흥고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해 의정 체험을 하고 있다.



▲ 교육위원회는 5월 27일 제42회 전국소년체전 개최지인 대구광역시를 찾아 청남초등학교 축구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 건설소방위원회는 6월 12일 상주시가 추진 중인 '문장대 용화온천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괴산군 청천면 사무소에서 '관광지 조성사업 저지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6월 13일 청주시 ▶ 율랑동에 위치한 충청북도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사후관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 3.0시대, Deliver true heart (진정성을 전달하라)

노 광 기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박근혜정부는 지난 6월 19일 ‘정부3.0 비전’을 선포하였다. 정부3.0은 국가 데이터를 국민과 공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1억여 건의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대폭 신장되고 민간의 창의와 결합되어 경제를 부흥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정보를 독점적으로 관리해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강조하는 시대변화에 부응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써, 정부3.0의 핵심은 정보의 ‘공유’에 있다고 하겠다.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갑과 을의 고착적인 주종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욕설파문이 을의 항변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되어 불공정하게 유지되어온 갑과 을의 종속적 위계질서를 깨고 협력적 파트너로서 공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분출되고 있으며, 이처럼 봇물같이 터진 갑·을의 관계 재구성의 핵심은 ‘공생’이라 할 수 있다.

정부3.0의 ‘공유’와 갑·을간의 ‘공생’을 관통하는 통섭적 가치는 ‘함께 한다’는 것이며, 함께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가장 요청되는 덕목은 정책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정보의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는 정보과잉 시대에서 도민들은 지방정부에게 진정성 있는 정책을 갈망하고 있다. 진정성 있는 정책이란 선한 의도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지역의 정체성에 충실하면서 도민들의 실생활에 동화

되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될 때 획득할 수 있다.

진정성이 있는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에 선한 의도가 내포되어야 한다. 선출직의 부정적 이미지를 미화시키는 것으로 이용되지 말아야 함은 물론, 도민의 진심어린 마음과 깊이 있는 신념에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정책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 도정이 가진 단점까지 가감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솔직함이 있어야 수궁을 얻을 수 있다.

이와함께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감성까지 터치할 수 있어야 한다. 도민들이 일상의 경험을 통해 도정정책의 메시지를 진심으로 공감할 때 진정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바야흐로 정부3.0시대가 현실이 되었다. 긍정적으로 보면 행정정보의 대폭적인 공개를 통해 그릇된 관행이 줄어들고 공무원의 책임감이 보다 강해지며 정책의 투명성과 적합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반면, 방대한 행정정보의 공개는 정보과잉 시대를 더욱 가속화시켜 가치 있는 정보에 대한 판단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지방정부는 정보공유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추진체계를 정비해 가면서, 정책에 진정성을 적극 가미하여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한다. ‘Deliver true heart’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마무리 하며

본 의원은 충청북도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충북도청과 충북도교육청에 대하여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12일간 결산검사를 했다.

결산 검사를 하면서 많은 사업들이 도민과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며 큰 보람을 느꼈다. 특히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과 '학기 중 토·공휴일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사업'은 꼭 개선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었다.

먼저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비의 경우 지방비 부담비를 줄이거나 전액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은 정부가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도민들은 이 사업이 전액 정부에서 지급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을 보면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 시·군비출연금으로 이루어져있다. 특히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2013년의 경우 107억원에 달한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시·군의 부담금은 매년 수직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올해도 전년도 대비 6억이 증가했다.

매년 복지예산이 상승함에 따라 시·군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중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은 국가 차원의 복지사업으로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거나 국비 지원 비율을 더 높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학기 중 토·공휴일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에서는 학기 중 학교급식이 없는 토·공휴일에 가정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자녀에게 급식비

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 사업추진 방법에 문제가 있어 좋은 취지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다.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전자카드, 식품권, 상품권, 쿠폰, 도시락제공 등 각 시·군별로 지원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일관성이 없어 보조금 집행과 관리가 어렵다. 또 학생들이 식품권, 상품권, 쿠폰을 중식 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며 심지어 학부모나 다른 사람이 생필품 구입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식비 지원방법을 일정한 포인트로 카드에 충전시켜주는 '전자카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사업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군이 급식비 지원에 '전자카드제'를 도입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결산은 단순히 예산집행과 불용액만 따지는 것이 아니다.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결산 대표위원을 지내면서 느낀 위의 두 사업은 꼭 개선되었으면 한다.



이 수 완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 인터넷생중계 : <http://assembtv.cb21.net>

●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gbuk/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성명, 생년월일)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익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편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b.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 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assemb.cb21.net>